

93.9.13

“더강한 자극으로 스트레스받는다” 10代 사로잡는 ‘댄스그룹가수’

댄스그룹 가수들의 인기
가 하늘을 찌른다.

방송사 가요프로그램의 인
기순위에서부터 쇼프로그램
광고는 물론, 이들 댄스그룹
가수들은 10대 청소년의 옷
차림과 머리모양에 이르기
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
있다.

지난주 KBS와 SBS
방송의 인기 가요 프로그램
에서 서태지와 아이들, 잼,
듀스, 노이즈(KBS 제외) 등
3, 4개 댄스그룹이 10위권
내에 파고 들었다. 요즘 유
행하는 가요 두셋종의 하나
는 댄스그룹 곡이라는 얘
기다.

이들 그룹이외에도 임크,
탁 2준 2, E.O.S, 1730, 색종
이, 코나 등이 밝고 경쾌한
노래와 현란한 춤으로 10대
를 사로잡고 있다.

댄스그룹이 인기를 끌자
여성들도 나섰다. 올해 M
BC 강변가요제에서 여성
4인조그룹 컬러가 대상을
따낸데 자극받은듯 늘씬한
4인조 미녀들이 SOS 코
메트 등 잇따라 그룹을 결성
했다.



그룹
「잼」



그룹 「노이즈」

도 과언이 아닙니다.
서태지와 아이들을 「발굴」
했던 MBC宋昌儀차장(「특
종 TV연예」PD)은 이들
로 인해 춤 노래 동작 의상
등 상당부분의 고정관념이
깨지게 됐다고 말했다.

밝고 경쾌한 「혼합음악」 청소년 욕구에 맞아

댄스그룹이 이렇게 가요
계에 돌풍을 일으킨 것은
92년초 서태지와 아이들의
등장에서 원형을 찾아야 한
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
다.

『가요계와 연예계의 풍토
가 서태지와 아이들로 인해
파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해

「하여가」에서 선보인 힙합
춤을 비롯, 브레이크댄스 하
회탈춤등이 있는가 하면 동
작도 기존 무대의 테두리를
완전히 벗어났다. 자유롭게
뛰놀듯 춤추고, 무대 구성구
석까지 놀이공간 삼아 중흥
무진 움직여 보는 사람의
흔을 쏙 빼놓는다.

음악 또한 랩 록 헤비메
탈 펑키 발라드 태평소가라
까지 망라하고 있어 도저히
한 장르로 정의하기 어렵
다. 「덜리가요」라고나 할까.
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
등장한 많은 댄스그룹들이
이러한 영향력에서 완전히
자유롭다고 말하기는 힘들

지만 새롭고 독창적인 춤 노
래를 개발, 댄스그룹의 인기
를 이어나가고 있다.

전문가들은 댄스그룹이 특
히 10대들 사이에 인기를 끄
는 것을 요즘 「뉴키즈」들의
속성에서 찾는다.

TV와 음악을 보고 들으
면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은
조용한 것을 못견뎌다. 노래
만 듣는 것에는 만족할 수

없다. 춤도 추고 무대가 좁
다고 뛰어다녀야 한다.

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찾
다보면 어지간한 자극에는
무감각해지게 마련이며 점
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
게 된다.

그러니 기성세대 눈에 「폐
지어 물려나와 때려부수는

듯 보이는」 댄스그룹이 청소
년들에게 인기를 끌 수밖에
없다.

어른들 눈에는 미성숙한
세대의 아우성처럼 비치는
댄스그룹은 청소년들에게는
그들만의 스트레스를 풀어
주는 탈출구 역할을 한다.

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권
위와 학교성적이라는 굴레
를 「예예예예이, 아이야아아
이」(하여가)하는 외침으로
뚱개버릴 수 있다. 대학을
안가도 노래로 성공할 수 있
는가하면 춤과 코미디 가요
같은 것에 명문대학생도 매
달린다는 것은 청소년들에
게 희망이 아닐 수 없다.

미국의 「경제심리학 저널」
은 유행가와 경기사이클은
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회
심리학자의 연구를 소개하
고 있다. 우울한 노래 유행
뒤엔 경기침체가, 밝은 가요
유행 뒤엔 경기상승이 이뤄
진다는 것이다.

모아기획 프로듀서인 金
昌煥씨는 「생활수준이 높아
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자동
차보급도 늘면서 밝고 경쾌
한 댄스그룹의 인기는 계속
될 수 밖에 없을 것」이라고
내다봤다. (金順德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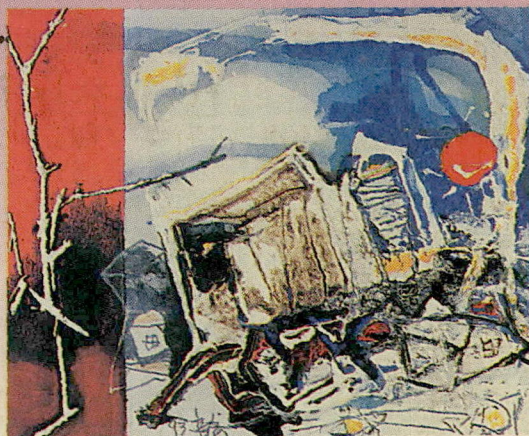
현란한 춤과
밝고 경쾌한
노래의 댄스
그룹이 가요
계를 휘어잡
고 있다. 10대
청소년들의정
서와 심리 생
활양식까지만
영하고 있다
는 분석이 일
고 있다.

가을 산책

김태은

가을이다
두리번거리도 온통 가을뿐이다
해질녘 버억가는 들은
백열등이 켜지고
갈매빛
마을에 국화 한 무더기
소금같이 피어난다

저 산자락 밑에
여름내 가는 허리 흔들던
담홍색 비비추꽃도
모두 시들고 말았다
석양에
물끄러미 보던 해가
금니박이로 웃고 있다



(그림 박수룡)

낙엽은 낙엽끼리
지는 꽃은 지는 꽃끼리
모두 떠나버린 빈 가을
무슨 색감이 열릴까

머리에
들국화 몇 개 꽂으며
두땃길을 걷는다

나도 무너질지 모르는
자꾸 흔들리는 이 가을
가다들은 마음 담아
차오르는 그대 생각
바람에
푸라타나스워 날리며
이별 연습을 했다

새시집 「영종도」에서